

# 이혼협상의 실태와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

## An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Divorce Negotiations and Major Related Variables\*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김수정

Dept. of Social Welfare, Youngnam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full-time lecturer : Kim, Soo Jeong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조사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합의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divorce negotiations and to identify major variables associated with positive divorce negotiations.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on 182 men and 246 women residi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area who had divorced between July 1999 and June 2002 with at least one child at the time of divorc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divorce negotiations are more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natures and resources of the subjects than by the nature of issues being negotiated.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were also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이혼협상(divorce negotiations), 이혼분쟁(divorce disputes), 이혼갈등(divorce conflicts)

#### I.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

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이혼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 가족들은 이혼을 통하여 불행

Corresponding Author: Kim, Soo Je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ungnam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117 Bong-hoe Ri, Jin-ryang Eup, Kyung-san Si, Kyung-buk, Korea 712-720 Tel: 053-850-0643 Fax 053-853-3652 E-mail:sj8457@yntcs.ac.kr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영남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한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도전을 통해 자기발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Spanier & Furstenberg, 1982; Wallerstein & Kelly, 1980) 반면에, 자아정체감과 자기가치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Hetherington, Cox, & Cox, 1978).

그러나 이혼의 결과가 어떠한 간에 이혼과정 자체는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며, 모든 가족성원들의 복지(well-being)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혼 가족들이 결혼에서 이혼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사회적 규범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혼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이 우리나라보다 더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혼의 제도화(Price & Mckenry, 1988)까지 논의하고 있는 서구에서조차도 이혼과정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Barnes, 1999; Bloom, Asher, and White, 1978).

이혼과정 중에서도 특히 법적 이혼이 성립되기 직전인 이혼협상기간이 이혼 가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Chiriboga & Cutler, 1977; Goode, 1956; Weiss, 1976). 이혼협상기간동안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협상과정에서 자녀나 재산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징계할 목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분쟁관계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협상과정동안 극심한 긴장과 갈등을 겪게 되며(Cassetty, 1978; Chambers, 1979; Hetherington, Cox, & Cox, 1976; Wallerstein & Kelly, 1980),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합의,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포함한 중요한 과제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신성자, 2000a).

이혼협상과정의 이해관계와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이혼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혼 부부는 만성적인 갈등관계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한 후에도 전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협력이 어려워지고,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거나, 계속되는 법정 공방을 시도하게 된다. 부모들 사이의 이와 같은 긴장과 갈등은 자녀들에게 우울과 분노, 무력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대인관계에서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Kline, Johnston, & Tschann, 1991; Shaw & Emery, 1987), 자녀들의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Tschann, Johnston, and Wallerstein, 1989; 오은순, 1997).

그러므로 이혼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원조함으로써 이혼당사자와 가족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혼 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혼협상과정에 대한 사회적 원조활동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는 이혼 당사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혼협상과정을 이해하고, 이혼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이혼협상의 실태와 결과를 파악하며, 이혼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혼협상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

초기의 이혼협상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혼문제 해결과정의 양상이나 문제점 그리고 분쟁해결의 결과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후 이혼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혼중재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혼중재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중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혼협상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분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혼협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혼협상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혼협상기간동안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상태는 어떠한지, 당사자들은 협상기간동안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다룬 이혼협상 실태에 관한 연구들이다 (Federico, 1979; 1980년대 Kressel의 다수 연구; Mastekaasa, 1996) 둘째, 이혼중재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과 이혼중재서비스에서의 중재자의 역할, 이혼중재에 적합한 대상자들의 조건 등 이혼중재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Bahr, Chappell, & Marcos, 1987; Cheung, and Kwok, 1999; Emery, Matthews, & Kitzmann, 1994; Erikson, 1991; Ferreiro, Warren, & Konanc, 1986; Gardner, 1999; Kressel, Jaffee, Tuchman, Watson, & Deutsch, 1980; Thoennes & Pearson, 1985; Whiting, 1992)로 풍부한 편이다. 셋째, 이혼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들로서, 이러한 연구는 이혼중재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반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뉘어진다. 이혼중재는 판결권이 없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당사자간의 합의이며, 당사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상이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의 특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중재 사례를 중심으로 이혼중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Erikson, 1991; Folberg & Milne, 1988; Johnston과 Campbell, 1988; (Kressel, 1980; Kressel & Deutsch, 1977; Kressel, et. al., 1980; Moore, 1988; Thoennes & Pearson, 1985)들은 우리나라의 이혼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해 내는데 풍부하고 유용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또한 향후 국내에서 이혼협상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활성화될 경우, 실천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국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이 가지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이혼중재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혼과정에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결과를 국내의 이혼협상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이혼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한 연구들(Hochberg, 1984; Robinson, 1983)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혼협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

국내의 이혼협상에 관한 연구로는 이혼과정에 있는 당사자들을 돕는 유일한 제도인 이혼조정서비스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 연구들(금민숙, 1980; 김동환, 1997; 신성자, 2000b; 정성호, 1991)과, 이혼협상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개입 사례를 소개한 연구(신성자, 2000a) 등 소수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이혼협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협상과정 자체를 다룬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간접적이거나 소수의 사례를 통하여 이혼협상 관련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이혼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해 보인다.

## 2. 이혼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이혼협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이혼협상의 결과와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특성(이혼 당사자 각각의 심리적 안녕 상태와 양가감정 수준), 권력특성(부부의 권력관계와 권력 불균형), 이혼욕구수준(당사자간 이혼욕구의 비교와 이혼욕구의 차이, 이혼제안 유형), 협상수준(협상분위기, 의사소통 수준, 갈등해결방식), 제3자의 개입(확대가족의 개입, 전문가의 개입유무), 그리고 협상소요기간을 선정하였다.

### 1) 이혼당사자의 심리적 특성

이혼협상은 이혼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Johnston & Campbell, 1988; Kressel et al., 1979).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이혼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서적 불안과 우울이 이혼협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몇몇 연구들(Hochberg & Kressel, 1996; Kressel, 1980)에서 밝혀졌다.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

역시 이혼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Kressel et al., 1985; 신성자, 2000b), 이혼을 결심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 애착은 여전히 존재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혼합된 감정들이 접근-회피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에 의한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인 협상과정을 방해하고, 협상을 지연시키며,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 2) 이혼당사자간의 권력불균형

이혼중재서비스를 직접 실천하고 연구한 많은 학자들(Brown, 1982; Haynes, 1981; Kressel, 1980, 1985; Moore, 1988; Pearson & Thoennes, 1985; Saposnek, 1983)은 결혼생활과 이혼 과정에서의 부부간 권력 불균형이 이혼분쟁해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권력은 경제적 능력(소득, 재산, 직업), 문제해결능력, 자신감, 의사결정권, 정보, 지지체계, 의사소통 능력 등 여러 근원을 통해서 형성되며(Haynes, 1988; Hochberg, 1984), 이러한 권력이 불평등한 상태에서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교묘하게 행동하거나 상대방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권력을 덜 가진 사람은 위축되거나 종속적이며 의존적이 되어 당사자간의 진실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Milne, 1988).

## 3) 이혼욕구의 차이

이혼을 원하는 정도가 다를 경우 배우자가 동시에 심리적 과정이나 슬픔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 등 배우자간 이혼에 대한 적응 불일치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이미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자 할 때 다른 배우자는 이제 막 슬픔의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잘 모르거나 심리적 욕구를 조절할 수 없게 되면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자녀나 재산문제 등을 협상하기 어려워진다(Hochberg, 1984; Moore, 1988; Milne, 1988).

## 4) 협상수준

이혼협상의 결과는 이혼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협상과정 동안 당사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chberg, 1984). 임상적, 경험적 연구들(Kressel, et al., 1980; Moore, 1988; Pearson & Thoennes, 1985)은 이혼과정동안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를 찾고자 시도해 왔다. 이러한 변수들로는 협상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들의 협력적/적대적 태도(Bahr et al.; Elgart, 1981; Kressel et al., 1980; Hochberg et al., 1996; 신성자, 2000b)와, 의사소통 수준(Erikson, 1991; Hochberg et al., 1996; Kressel et al., 1980; Pearson & Thoennes, 1985; 신성자, 2000b), 강압적/설득적 갈등해결방식(Elgart, 1981; Erikson, 1991; Hochberg, 1984; Kressel et al., 1980) 등이 있다.

## 5) 제3자의 개입

확대가족들과 새로운 파트너, 정신건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개입으로 이혼협상이 더 지연되고 격렬해 지는 경우가 있다. 확대가족은 이혼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는 반면에 간섭과 복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간섭으로 갈등을 더욱 조장하기도 한다(Erikson, 1991; Kressel et al., 1977). 또한 현재의 법적 체제가 대심체제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공정한 해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Erikson, 1991; Hochberg et al., 1996; Kressel et al., 1977).

## 6) 이혼협상 소요기간

지나치게 협상이 장기화되면, 당사자들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을 위해 협상을 더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사자들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지치거나 상처를 입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시각을 굳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상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이혼협상과정을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결국 이혼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Erikson, 1991; Robinson, 1983; Thoennes & Pearson, 1985).

### III. 연구방법

#### 1. 조사절차 및 대상

서베이 조사연구에 필요한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먼저 이혼협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관련 요인들과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작성된 설문문항을 가지고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혼상담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당도 조사과정을 거쳤으며, 이혼 남성과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2002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사전조사과정을 거쳐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이혼자들 중에서 첫째, 조사일 현재 이혼한 지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람이며, 둘째, 이혼협상 당시 자녀가 있었던 이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을 이혼한 지 3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유자녀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이혼협상에 있어서 협상해야 할 영역(협상의 의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 7개 구<sup>1)</sup>에 대해 이혼 남성과 이혼 여성을 같은 비율로 하여 각 구별로 70부, 총 490부의 설문조사를 2002년 7월 18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이혼 남성 194명, 이혼 여성 261명으로 총 45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부실하게 응답한 것과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27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된 설문지는 이혼 남성 182부, 이혼 여성 246부 등 총 428부이다.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현재 가구 월 소득이 평균 111만원으로, 이는 1999년 전국 이혼 인구 월 평균소득 분포(통계청, 2002)<sup>2)</sup>와 비교해 봤을 때 소득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시점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조사대상이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sup>3)</sup>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혼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이혼 남성의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이 128만원인데 비해, 이혼여성은 99만원으로 성별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혼 후 경과기간은 평균 22.3개월로, 경과기간이 2년~3년인 경우(43.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년 이하, 1년 이하의 순이었다.

#### 2. 변수의 정의 및 조사도구

##### 1) 종속변수

###### (1) 이혼합의의 어려움

'이혼합의의 어려움'은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합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묻는 것으로, 두 사람이 ① 이혼하는 문제, ② 자녀양육권 문제, ③ 자녀 면접권 문제, ④ 자녀 면접방법에 관한 문제, ⑤ 자녀양육비 문제, ⑥ 재산분할/위자료 문제 등을 합의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묻는 6문항과, 전반적인 합의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1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아주 쉬웠다" 1점에서 "아주 힘들었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2) 이혼합의의안 상호만족도

'이혼합의의안 상호만족도'는 위의 '이혼합의의 어려움' 척도와 동일한 6개의 합의영역에 따라 두 사람이 합의한 합의내용이 부부 모두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이었는가를 묻는 6문항과 전반적인 만

- 1)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2년 현재 8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달성군은 1995년에 대구광역시에 새롭게 편입된 데다가, 달성군의 주거환경이 농공 혼합형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달성군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혼인구의 월 평균 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이 60%, 200만원 미만이 92% 정도로 보고되었다. 1999년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혼자들의 월 소득에 대한 최근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 3) 일반인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사무직이 가장 많고, 판매직, 생산직, 서비스직, 전문가집단, 단순노무직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1). 그리고 월평균소득은 약 241만원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1).

족정도를 묻는 1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합의내용에 대해서 서로 만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독립변수

### (1) 이혼당사자의 심리적 특성

① 응답자와 배우자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 상태(2문항)

이혼협상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응답자의 경우와 배우자의 경우를 각각 한 문항씩 질문하였다. 문항은 5점 척도로 “대단히 나쁜 편이었다”의 1점에서부터 “좋은 편이었다”의 5점까지의 범위로 되어 있다.

②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4문항)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 역시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를 각각 2문항씩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았다~5점=매우 그랬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가감정 수준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 (2) 부부의 권력특성

먼저 부부의 권력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척도를 구성하였는데, 즉 경제력(1문항), 이혼에 관한 지식(1문항), 자기 확신(2문항), 의사소통능력(1문항), 의사결정권(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협상기간동안 본인과 배우자 중에서 누가 더 좋거나, 많았는지 응답하도록 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내가 훨씬 더 그랬다” 1점, “배우자가 훨씬 더 그랬다” 5점, “둘이 비슷했다” 3점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권력불균형은 권력관계 척도를 가지고 권력관계가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3점을 기준으로 하여 0점으로 처리하고, 각 점수가 3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로써 각 문항의 값을 산출한다. 그 다음 각 문항의 값들을 더하면 권력 불균형을 나타내는 값을 얻게 된다.

### (3) 이혼욕구수준

먼저 부부간 이혼욕구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혼협상기간동안 누가 더 이혼을 원했는가를 조사

하였다. 7점 척도로, “내가 훨씬 더 원했다”를 1점, “배우자가 훨씬 더 원했다”를 7점, “둘이 비슷했다”를 중간 점수인 4점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부부간 이혼욕구의 차이는 이혼욕구 비교점수를 가지고 이혼을 원하는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4점을 0점으로 하여 기준으로 삼고, 점수가 4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로써 값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혼제안유형이 이혼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누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는가를 조사하여 응답자와 배우자가 함께 제안한 경우(쌍방)를 0으로,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제안했을 경우(일방적) 1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 (4) 협상수준

① 협상 분위기(3문항)

협상분위기는 협상기간동안 부부의 서로에 대한 태도로써, 협상과정에서 응답자와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각각 묻는 2문항과, 당사자간의 서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묻는 1문항으로 하여 총 3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아주 적대적인 편이었다~5점=아주 협력적인 편이었다)로 구성하였다.

② 의사소통수준(5문항)

이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할 때의 의사소통수준을 묻는 것으로, 부부의 의사소통은 부부대화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하기, 듣기, 상대방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분위기, 의사소통 빈도 등을 중심으로 각각 1문항씩 총 5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수준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③ 갈등해결방식(11문항)

갈등해결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Kurdek(1994)의 갈등해결척도(Conflict Resolution Inventory: CRI)와 Straus(1996)의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번안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이성적 문제해결, 언어적 공격, 회피의 영역에서 각 3문항씩 추출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갈등해결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신

체적 폭력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96)의 CTS2 중에서 신체적 폭력에 대한 문항들을 통합하여 경미한 신체적 폭력(1문항)과 심각한 신체적 폭력(1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4개 하위 영역별 갈등해결방식의 사용정도가 각각의 변수로 취급되므로 각 하위영역별로 따로 계산하였다.

#### (5) 제3자의 개입

##### ① 확대가족의 개입(12문항)

이혼협상에 대한 확대가족의 개입은 개입의 성격에 따라 긍정적 개입(.88), 부정적 개입(.64), 실질적인 개입(.83)으로 나누어 6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를 각각 질문하였기 때문에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개 하위영역별 확대가족의 개입수준은 각각의 영역으로 취급되므로 각 하위영역별로 계산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점=전혀 안 그런 편이었다, 2점=안 그런 편이었다, 3점=그런 편이었다, 4점=매우 그런 편이었다)이다.

##### ② 전문가의 개입유무(1문항)

이혼협상과정에서 원조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이혼문제 상담가, 기타)들의 도움을 받았는가를 조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1,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0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 (6) 협상소요기간(1문항)

협상소요기간은 부부 중에서 누군가 이혼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나서 최종 법적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개월 단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7) 이혼관련 특성

##### ① 이혼원인<sup>4)</sup>

20개의 지각된 이혼 원인들을 이유의 소재(the locus of the reason)에 따른 범주화(Ponzetti, Cate, & Huston, 1992)를 근거로 하여 부부의 개인적 문제, 부부공동의 문제로 분류하였고, 상황적/환경적인 문제 중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한정하였다. 개인적 문제에 의한 이혼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 ② 이혼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협의이혼의 경

우 0, 재판이혼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각 동(洞)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구체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각 동(洞)별 예비 조사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진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조사원 교육(7월 5일~7월 16일)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혼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성별, 이혼종류별 이혼협상과정의 양상과 '이혼협의의 어려움'과 '이혼협의안 상호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t-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 Variable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혼협의의 어려움'과 '이혼협의안 상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조사분석결과

### 1. 이혼협상 당시 부부의 일반적 특성

이혼분쟁 당시 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남편과 아내의 연령은 30대가

4) 개인적 문제(외도, 음주, 도박, 신체 폭력, 정신 학대, 외처중/외부중, 도벽, 거짓말, 가출, 질병/신체적 결합), 공동의 문제(성격차이, 불신, 사상 및 종교의 불일치, 애정 없음, 성적 불만), 경제적 문제(생활무능, 경제파탄, 경제적 낭비).

가장 많았고(남편 56.5%, 아내 66.4), 40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들이 이혼할 당시인 2000년의 이혼연령 통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30대가 약 42%이고 여성은 약 44%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남편(84.6%)과 아내(82.5%) 대다수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은 약 32%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반면에, 아내는 37%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의 학력분포<sup>5)</sup>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의 경우에는 조사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더 치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혼 당시 가구 월평균 소득은 177만원으로 도시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인 239만원(통계청, 200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소득수준에 비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더 낮게 나타나 전체 응답자중 41.1%가 자신을 하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부의 종교를 보면, 종교를 가진 경우보다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남편 64.7, 아내 58.6%)가 더 많았고, 남편과 아내 모두 불교를 종교로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혼분쟁 당시 자녀는 2명인 경우

5) 2000년의 인구통계연보를 보면 남편의 약 50%, 아내의 43%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1〉 이혼분쟁 당시 부부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남편	아내	구 분		전체	
		명(%)	명(%)			명(%)	
연령	20-29세	11( 2.6)	41( 9.6)	가구월소득	100만원 미만	96(22.4)	
	30-39세	242(56.5)	284(66.4)		100-200만원 미만	166(38.8)	
	40-49세	154(36.0)	97(22.7)		200-300만원 미만	97(22.7)	
	50세 이상	21( 4.9)	6( 1.4)		300만원 이상	69(16.1)	
	평균	38.36세	35.77세		평균	176.98만원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3( 3.0)	12( 2.8)	자녀수	1명	179(41.8)	
	중졸	53(12.4)	63(14.7)		2명	229(53.5)	
	고졸	160(37.4)	194(45.3)		3명	18( 4.2)	
	전문대졸	64(15.0)	50(11.7)		4명 이상	2( 0.5)	
	대졸	129(15.0)	103(24.1)		결혼기간	5년 이하	115(26.9)
대학원졸	8( 1.9)	4( 0.9)	6-10년 이하	152(35.5)			
종교	없음	277(64.7)	251(58.6)	11-15년 이하		109(25.5)	
	기독교	31( 7.2)	36( 8.4)	16년 이상		52(12.1)	
	천주교	11( 2.6)	19( 4.4)	평균		9.44년	
	불교	91(21.3)	99(23.1)	이혼종류	협의이혼	337(78.7)	
	기타	15( 3.5)	21( 4.9)		재판이혼	91(21.3)	
직업	무직	44(10.3)	223(52.1)		이혼원인	개인적 문제	145(33.9)
	단순노무직	75(17.5)	40( 9.3)			부부공동의 문제	166(38.8)
	생산직	75(17.5)	14( 3.3)			경제적 문제	117(27.3)
	판매직	21( 4.9)	41( 9.6)	주관적경제수준	상	11(2.5)	
	자영업	72(16.8)	21( 4.9)		중	238(55.6)	
	사무직	100(23.4)	64(15.0)		하	177(41.4)	
	전문직	27( 6.3)	15( 3.5)				
	관리직	10( 2.3)	4( 0.9)				
	기타	4( 0.9)	6( 1.4)				



가 53.5%로 가장 많았고, 95% 이상이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평균 9.5년 정도로 나타났으며,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는 27%,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난 뒤 이혼하는 경우도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약 79%의 이혼부부들이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혼 형태<sup>6)</sup>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혼의 원인으로서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종교 및 가치관의 불일치, 불신 등 부부공동의 문제로 인한 이혼이 38.8%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문제(33.9%), 경제적 문제(27.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2. 이혼협상의 실태

### 1) 이혼협상과정의 실태

먼저 이혼협상 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혼협상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긴장상태를 반영하듯이 당사자들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심리적 안녕 상태는 본인의 경우는 2.61점, 배우자의 경우는 2.71점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심리적 안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이 성립되기 직전인 이혼협상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Casserty, 1978; Hetherington et al., 1976; Wallerstein & Kelly, 1980)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 수준은 본인은 2.95점, 배우자 2.96점으로, 부부가 낮은 정도의 양가감정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와 본인의 권력정도는 비슷한 것(평균 2.95점)으로 나타났지만, 본인이 아주 근소한 정도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권력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권력으로 변환하여 분석해보면<sup>7)</sup>, 아내와 비교한 남편의 권력수준은 3.89점으로 아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이혼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곽배희, 1994; 김혜련, 1993; Hochberg et. al., 1996)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부의 이혼욕구를 비교한 점수는 3.69점으로 배우자에 비해서 본인이 좀 더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아내와 비교한 남편의 이혼욕구 점수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7점 중 3.15점으로, 남편에 비해 아내가 더 이혼을 원했음을 알 수 있다. 부부 중에서 아내가 더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약 50% 정도인 반면에,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15% 정도였으며, 35%는 둘이 비슷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35%는 부부간 이혼욕구가 거의 비슷한(0점) 반면, 이혼욕구가 완전 불일치한 부부도 36%로 밝혀졌다. 이혼 선거론자는 아내인 경우가 전체 이혼부부 중에서 54%로 나타난 반면에 남편인 경우는 19%로 나타나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들(김병찬, 2000; 한국가족학연구회, 1993)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혼당사자들은 대체로 적대적인 태도(2.52)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의사소통수준(2.31) 또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부정적인 해결방식인 회피(3.18)와 언어적 공격(2.79)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자 즉 확대가족은 이혼협상과정에 활발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97), 긍정적 개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

- 6) 3년 전인 1999년 당시 전국의 경우 전체 이혼 중에서 16%가 재판이혼이었으며, 대구시의 재판이혼율은 18%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재판이혼율이 전국적으로는 16%, 대구시의 경우에는 19%이고, 2001년에는 전국적으로는 17%, 대구광역시는 20%였다(통계청, 2002).
- 7) 본인과 배우자의 권력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권력관계로 변환하는 과정은 남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권력점수를 역점수로 처리하였고, 여성 응답자의 권력점수는 그대로 두면 남편과 아내의 권력관계가 된다. 1점에 가까울수록 남편에 비해 아내의 권력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5점에 가까울수록 아내에 비해 남편의 권력이 많음을 의미한다.

〈표 2〉 전체 대상자의 이혼협상의 실태와 이혼종류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변수명	협의이혼	재판이혼	전체	t 값	
		평균(SD)	평균(SD)	평균(SD)		
인구통계 학적특성	성별	.58( .49)	.55( .50)	.57(.49)	.548	
	남편의 교육수준	3.71(1.16)	3.31(1.21)	3.63(1.18)	2.928**	
	아내의 교육수준	3.50(1.13)	3.13(1.04)	3.42(1.12)	2.985**	
	남편의 소득	128,06(79,79)	120,65(85,73)	126,50(81,04)	.766	
	아내의 소득	55,64(76,53)	44,18(60,12)	53,17(73,39)	1.321	
	남편의 종교유무	.35( .48)	.36( .48)	.35(.48)	-.164	
	아내의 종교유무	.39( .49)	.47( .50)	.41(.49)	-1.349	
	주관적 생활수준	4.28(1.05)	4.58(1.03)	4.35(1.05)	-2.441*	
이혼원인	자녀수	1.58( .57)	1.81( .63)	1.63(.59)	-3.332***	
	별거 경험	.96(1.27)	1.49(1.55)	1.07(1.35)	-2.986**	
	결혼 기간	8.87(4.66)	11.52(5.45)	9.44(4.95)	-4.623***	
	개인적 문제	.32( .47)	.43( .50)	.29(.46)	-1.966	
	부부공동의 문제	.37( .48)	.23( .42)	.34(.48)	2.770**	
	경제적 문제	.23( .42)	.27( .45)	.24(.43)	-.794	
	심리적 특성	본인의 심리상태	2.62( .82)	2.55(1.04)	2.61( .87)	.602
		배우자의 심리상태	2.69( .86)	2.76( .91)	2.71( .87)	-.651
본인의 양가감정		3.00(1.08)	2.76(1.29)	2.95(1.13)	1.661	
배우자의 양가감정		3.03(1.03)	2.72(1.17)	2.96(1.07)	2.279*	
권력특성	권력관계	2.95( .67)	3.08( .76)	2.95( .75)	-1.660	
	권력 불균형	.80( .51)	1.02( .53)	.74( .50)	-3.503	
이혼욕구의 수준	이혼 욕구 비교	3.75(1.87)	3.50(2.24)	3.69(1.95)	.960	
	이혼 욕구의 차이	1.38(1.28)	1.88(1.31)	1.49(1.30)	-3.236***	
	이혼제안 유형	.73( .45)	.79( .41)	.74( .44)	-1.323	
협상수준	협상 분위기	2.62( .81)	2.15( .73)	2.52( .82)	5.010***	
	의사소통	2.38( .83)	2.02( .69)	2.31( .81)	3.832***	
	갈등 이성적 문제해결	2.22( .89)	1.84( .72)	2.14( .87)	4.231***	
	해결 언어적 공격	2.74(1.00)	2.97(1.00)	2.79(1.01)	-1.903	
	방식 회피	3.12(1.00)	3.39( .96)	3.18(1.00)	-2.258*	
	신체적 폭력	1.96(1.03)	2.32(1.08)	2.04(1.05)	-2.920**	
제3자의 개입	확대 긍정적 개입	2.20( .73)	2.15( .75)	2.19( .73)	.587	
	가족 부정적 개입	1.89( .64)	2.08( .72)	1.93( .66)	-2.351*	
	개입 실질적 개입	1.90( .67)	1.96( .68)	1.91( .67)	-.742	
	전문가 개입 유무	.41( .49)	.58( .50)	.44( .55)	-3.021**	
이혼협상 소요기간		10.46(12.45)	14.15(17.31)	11.24(13.67)	-1.873	

주 : \*p<.05 \*\*p<.01 \*\*\*p<.001

사되었다. 이혼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경제적 지원이  
나 자녀를 돌봐주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주

로 확대가족의 도움을 받지만, 이혼협상에 필요한  
정보나 조언을 얻는다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얻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Duran-Aydintug, 1998)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대상자의 약 44%가 협상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약 65% 이상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27%는 이혼문제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혼유형 즉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라 이혼협상과정의 양상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 즉 부부의 교육 수준이 높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는 집단은 결혼기간이 짧고 자녀수가 더 적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협의이혼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혼원인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부공동의 문제인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세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개인적 문제에 의한 이혼보다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특성에서는 배우자의 양가감정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재판이혼에 비해서 협의이혼인 경우 배우자가 더 양가감정을 느낀다고 인식하였다. 부부의 권력관계와 권력의 불균형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혼욕구에 있어서 협의이혼에 비해서 재판이혼일 때 부부간 이혼욕구의 차이가 더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재판이혼의 경우에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는 반면에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자체의 문제로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당사자간의 협상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협의이혼에 비해서 재판이혼의 경우 협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협의이혼에 비해서 재판에 의한 이혼일 때 협상분위기는 더 적대적이며,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고, 갈등해결방식 중에서는 긍정적인 해결방식인 이성적 문제해결방식은 덜 사용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해결방식인 회피나 신체적 폭력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자의 개입 수준을 보면, 협의이혼에 비해서 재판이혼인 경우에 확대가족들이 이혼협상과정에 부정적인 개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소요기간에 있어서는 재판이혼이 14개월로 협의이혼 10.5개월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이혼합의의 어려움' 과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

### (1) '이혼합의의 어려움' 정도

먼저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이혼합의의 어려움'은 척도의 중간값(3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평균 3.12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약 40% 정도는 평균점수가 3점 미만<sup>8)</sup>으로 이혼에 관한 제 문제들을 합의하는 것이 쉬웠다고 응답한 반면에, 45% 정도(평균점수 3-4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나머지 15% 정도(평균점수 4점 이상)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합의 영역별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는가? 합의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역은 자녀양육비(3.30)와 이혼문제(3.2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녀면접교섭권(2.74)과 자녀 면접방법(2.73)을 합의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1년에 와서야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자녀면접교섭권이 신설될 정도로 자녀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혼협상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녀면접교섭권 자체를 합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sup>9)</sup>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8) 1점-아주 쉬웠다. 2점-대체로 쉬웠다. 3점-좀 힘들었다. 4점-대체로 힘들었다. 5점-아주 힘들었다.

'이혼합의의 어려움'은 이혼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이혼합의의 어려움'은 <표 3>과 같이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문제(3.73), 자녀양육권(3.62)과 양육비(3.62)를 합의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와 재산분할/위자료 문제 즉 재산 관련 문제를 합의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혼종류에 따라서 분쟁 영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혼종류에 따라 개입의 초점이 달라져야 함을 볼 수 있다. 협의이혼에 비해서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 이혼에 관한 제 문제들을 합의하는데 더 어려움을 경험하며, 특히 이혼문제와 자녀문제를 합의하는데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 평가

전체 조사 대상 부부의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는 평균 2.92점<sup>10)</sup>(중간점수 3점)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약간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부부의 48%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1점-3점 미만) 반면에, 41%는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결과를 이끌어낸 것(3점 초과-5점)으로 나타나, 합의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별 합의안

에 대한 상호 만족수준을 살펴보면,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는 것(3.10)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권(3.06)과 자녀면접교섭권(3.07)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반면에, 자녀면접방법과 자녀양육비, 재산분할/위자료에 대한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혼종류에 따른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를 살펴보면, 재판이혼에 비해서 협의이혼인 경우에 합의내용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합의영역별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이혼문제와 자녀양육권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재판이혼에 비해서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면접교섭권과 면접방법, 자녀양육비, 재산분할/위자료에 대한 합의내용에 대해서 상호만족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협의이혼에 비해서 재판이혼인 경우에 협상의 과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재판이혼 제도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함

- 9) 재판이혼의 경우, 자녀면접교섭권을 청구한 비율이 전체 이혼청구건수 중 약 2% 정도로 나타나 지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성정현 외, 2001).  
10) 1점-전혀 그렇지 않았다. 3점-그저 그랬다. 5점-매우 그랬다.

<표 3> '이혼합의의 어려움' 정도와 이혼종류에 따른 차이

구 분		협의이혼 평균(SD)	재판이혼 평균(SD)	전체 평균(SD)	t 값
이혼합의		3.07( .96)	3.73(1.10)	3.21(1.02)	-5.205***
자녀문제	자녀양육권	2.96(1.13)	3.62(1.15)	3.10(1.16)	-4.862***
	자녀면접교섭권	2.62( .95)	3.19(1.13)	2.74(1.02)	-4.344***
	자녀면접방법	2.62( .96)	3.13(1.17)	2.73(1.03)	-4.292***
재산문제	자녀양육비	3.21(1.16)	3.62(1.18)	3.30(1.17)	-2.947**
	재산분할/위자료	3.12(1.22)	3.36(1.35)	3.17(1.25)	-1.563
전반적인 합의의 어려움		3.44( .97)	4.02( .87)	3.57( .98)	-5.176***
전체		3.01( .74)	3.52( .80)	3.12( .78)	-5.806***

주 : \*p<.05 \*\*p<.01 \*\*\*p<.001

<표 4> '이혼협약의 상호만족도' 정도와 이혼종류에 따른 차이

구 분	협의이혼 평균(SD)	재판이혼 평균(SD)	전체 평균(SD)	t 값	
이혼합의	3.11(.81)	3.08(.96)	3.10(.84)	.330	
자녀문제	자녀양육권	3.09(.93)	2.92(1.02)	3.06(.96)	1.526
	자녀면접교섭권	3.14(.82)	2.79(.91)	3.07(.86)	3.493***
	자녀면접방법	3.07(.85)	2.67(.93)	2.98(.88)	3.889***
재산문제	자녀양육비	2.71(.92)	2.25(.90)	2.61(.93)	4.222***
	재산분할/위자료	2.75(.91)	2.41(1.03)	2.68(.95)	2.866**
전반적인 합의안 상호만족도	3.00(.79)	2.62(.79)	2.92(.80)	4.143***	
전체	2.98(.61)	2.68(.63)	2.92(.63)	4.202***	

주 : \*p<.05 \*\*p<.01 \*\*\*p<.001

을 알 수 있다.

### 3. 이혼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 '이혼합의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대상자의 이혼합의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입력방식(step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1개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이 '이혼합의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정도는 37.2% 였다. 주요 변수들을 보면 확대가족의 실질적 개입(.241)이 가장 영향력이 크며,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심리상태(-.182)와 남편의 교육수준(.152)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종류(.137), 언어적 공격(.129), 의사소통수준(-.127), 협상분위기(-.113), 이성적 문제해결(-.112), 결혼기간(.104), 이혼제안 유형(.098), 본인의 양가감정수준(.089)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협상과정에서 확대가족의 실질적 개입수준이 높고, 본인의 심리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혼에 관한 제 문제들을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재판에 의한 이혼일 때, 그리고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할수록, 의사소통수준이 낮을수록, 이성적 문제해결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부부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이혼제안인 경우, 본인의 양가감정수준이 높을수록, 협상분위기가 적대적일수록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협상분위기와 확대가족의 실질적인 개입수준, 본인의 심리상태 그리고 의사소통수준 등 4개 변수들이 '이혼합의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정도가 31.3%인데 비해 나머지 7개의 변수들이 갖는 설명력은 6.3%로, 이들 4개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개입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합의의 어려움'에 7개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이 '이혼합의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정도는 32%이다.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수준(-.241)과 본인의 심리상태(-.217)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확대가족의 실질적 개입수준(.178)과 부정적 개입수준(.148)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었다.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139)과 언어적 공격(.139), 협상소요기간(.103)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에 의한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당사자간의 의사소통수준이 낮고, 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확대가족이 협상과정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개입을 많이

〈표 5〉 '이혼합의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체	협의	재판
			B( $\beta$ )	B( $\beta$ )	B( $\beta$ )
인구통계 학적특성	성별				-0.424(-.278)**
	남편 교육 아내 교육 남편 소득 아내 소득 남편 종교유무 아내 종교유무 주관적 생활수준 자녀수 별거 경험 결혼 기간		9.956E-02(.152)***          1.628E-02(.104)*	8.945E-02(.139)**	-0.263(-.167)*
이혼특성	이혼종류 이혼원인 · 부부공동의 문제 · 경제적 문제		.258(.137)**		
심리적특성	본인의 심리상태		-.163(-.182)***	-.197(-.217)***	-.173(-.227)**
	배우자의 심리상태 본인의 양가감정 배우자의 양가감정		6.077E-02(.089)*		.131(.201)*
권력특성	권력관계 권력불균형				.251(.165)*
이혼욕구수준	이혼욕구의 비교 이혼욕구의 차이 이혼제안 유형		.173(.098)*		.188(.321)***
협상수준	협상 분위기 의사소통		-.106(-.113)* -.124(-.127)*	-.223(-.241)***	-.335(-.326)***
	갈등 해결 방식	이성적 문제해결 언어적 공격 회피 신체적 폭력	-.102(-.112)* .103(.129)**	.107(.139)*	
제3자의 개입	확대 가족 개입	긍정적 개입 부정적 개입 실질적 개입		.172(.148)* .201(.178)**	.329(.285)***
		전문가 개입유무	.282(.241)***		
협상소요기간				6.152E-03(.103)*	
R <sup>2</sup> (Adj R <sup>2</sup> )			.390(.372)	.336(.320)	.541(.491)
F			21.710***	21.295***	10.894***

주 : \*p<.05 \*\*p<.01 \*\*\*p<.001

할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당사자가 서로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할수록, 협상소요기간이 길

수록 이혼에 관한 제 문제를 합의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특히 당사자들의 협상수준과 제3자의 개입 유형 및 수준이 이혼합의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상과정이 더 갈등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보다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협상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협상과정은 보다 더 갈등적인 관계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협상분위기(-.326)와 부부의 이혼욕구의 차이(.321)가 가장 영향을 미치며, 확대가족의 실질적 개입수준(.285), 응답자의 성별(-.278), 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227), 배우자의 양가감정 수준(.201), 남편의 종교유무(-.167), 부부간 권력불균형(.165)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8개의 요인들이 재판이혼의 '이혼합의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는 정도는 49.1%로 비교적 높은 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별이 '이혼합의의 어려움'과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즉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이혼 문제를 합의하는데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반면에, 합의안에 대한 상호만족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이혼협상 결과의 차이는 이혼을 '당한' 사람과 이혼을 '주도한' 사람의 입장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혼을 당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혼의 과정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며, 이혼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oode, 1978; Spanier & Castro, 1979).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이혼욕구와 권력불균형 등의 변인이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재판이혼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상호작용보다는 제3자를 통해 이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비해 당사자간

의 협상수준이 이혼합의의 어려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응답자의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이성적 문제해결(221)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협상분위기(.196), 본인의 양가감정(-.131), 의사소통수준(.130), 남편의 소득(.122), 본인의 심리상태(.112), 이혼종류(-.1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이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28.3%였다.

이혼 당사자들이 이성적 문제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협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할수록, 본인의 이혼에 대한 양가감정 수준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본인의 심리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협의에 의한 이혼인 경우에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성적 문제해결 방식과 협상분위기의 2개 변수가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22.9%로, 7개 변수들 중에서 압도적인 설명력을 가진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에 6개의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이성적 문제해결(.36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상분위기(.153)와 본인의 심리적 안녕 상태(.138), 남편의 소득수준(.138), 본인의 양가감정 수준(-.134), 별거경험(.102)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6개의 요인들이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25.2%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협상분위기라는 한 요인이 합의안 상호만족도를 18%이상 설명하는 반면에 나머지 6개의 요인들의 설명력은 6.8%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상태도만 고려하여도 이혼합의안 상호만족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선행연구Thoennes & Pearson,

<표 6>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체	협의	재판
			B(β)	B(β)	B(β)
인구통계 학적특성	성별				.238(.188)*
	남편 교육		9.429E-04(.122)**	1.039E-03(.138)**	
	아내 교육				
	남편 소득				
	아내 소득				
	남편 종교유무				
	아내 종교유무				
	주관적 생활수준				
	자녀수				
	별거 경험				
결혼 기간					
이혼특성	이혼종류		-0.160(-.106)*		
	이혼원인 · 부부공동의 문제 · 경제적 문제				
심리적특성	본인의 심리상태		8.035E-02(.112)*	9.994E-02(.138)*	
	배우자의 심리상태				
	본인의 양가감정		-7.2E-02(-.131)**	-7.4E-02(-.134)*	
배우자의 양가감정					
권력특성	권력관계				
	권력불균형				-0.282(-.223)*
이혼욕구수준	이혼욕구의 비교				
	이혼욕구의 차이				
	이혼제안 유형				
협상수준	협상 분위기		.148(.196)***	.113(.153)**	.381(.447)***
	의사소통		.102(.130)*		
	갈등 해결 방식	이성적 문제해결	.162(.221)***	.248(.360)***	
		언어적 공격			
회피					
신체적 폭력				-0.131(-.219)*	
제3자의 개입	확대	긍정적 개입			
	가족	부정적 개입			
	개입	실질적 개입			
전문가 개입유무					
협상소요기간					
R <sup>2</sup> (Adj R <sup>2</sup> )		.296(.283)	.267(.252)	.369(.337)	
F		22.673***	17.960***	11.426***	

주 : \*p<.05 \*\*p<.01 \*\*\*p<.001

1985)에서는 별거경험이 이혼협상결과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오

히려 별거경험이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 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



의 선행연구에서는 이혼협상의 과정적 측면 특히 이혼중재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별거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별거경험이 이혼협상의 결과 즉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갈등적이고 고통스러운 별거경험으로 인하여 이혼협상의 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혼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생각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혼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4개의 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변수들이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33.7%로 나타났다. 당사자간의 협상분위기(.447)가 '합의안 상호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부부간의 권력불균형 정도(-.223)와 신체적 폭력(-.219)정도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성별(.188)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이혼의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이러한 요인들은 Hochberg(1984)의 연구결과에서 이혼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과 유사한 것이다. 재판에 의한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협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며, 권력관계는 어떠한지, 제3자인 확대가족과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은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의 '이혼합의의 어려움'과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를 더 잘 예측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 합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이혼협상 과정에 있는 부부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이혼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선행 작업으로써, 이혼부부들의 이혼협상의 실태와 이혼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혼협상에 관한 선행연구들로부터 이혼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대구시에 거주하는 이혼 남성(182명)과 이혼 여성(2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이혼한 지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이혼 남성과 여성으로 하였고, 이혼할 당시 자녀가 있었던 자들로 한정함으로써 이혼협상 의제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이혼협상 과정동안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우울, 불안 등의 심리상태는 좋지 않았다(각각 2.61, 2.71)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혼에 대해서는 그다지 양가감정을 가지지 않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혼당사자들의 협상수준을 보면, 당사자들은 협력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였고, 협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태도나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협상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성적 문제해결보다는 회피나 언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을 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혼협상과 관련된 부부의 권력적 특성에 있어서 부부간 권력불균형 점수는 .74점(2점-완전 불균형)으로 불균형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이혼에 대한 욕구수준에 있어서는 남편에 비해서 아내가 더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편 확대가족과 전문가들은 이혼협상 과정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부부들은 이혼에 관한 제 문제들을 서로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내용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이혼협상 경험은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는데, 협의이혼에 비해서 재판에 의한 이혼인 경우에 특히 이혼당사자들의 협상수준이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사자들의 협상태도가 더 적대적이며, 의사소통 수준이 더 좋지 못하고, 긍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은 더 적게 사용하는 반면 부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이혼인 경우 당사자간

이혼갈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혼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이혼 당사자들의 협상수준과 확대가족의 개입 유형 및 개입 수준, 그리고 이혼종류 등이 '이혼합의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에,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는 당사자들의 협상수준과 심리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혼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혼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혼종류에 따라서 이혼협상 과정에 대한 개입전략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의 협상결과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이혼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협상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과 이혼협상 결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협상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진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실제 이혼 남성(182명)과 이혼 여성(246명)을 대상으로 이혼협상에 관한 광범위한 경험적 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혼협상의 실태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혼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각각 평가하였으며, 이혼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이혼 당사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자질, 자원,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혼협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관련 변인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이혼 가족들은 이혼협상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협상의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이혼협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둘째, '이혼합의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혼협상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이해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인 이혼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원조하기 위한 개입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다. 이혼협상에 있어서 과정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합의의 어려움'은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이혼협상의 외부체계나 이혼관련 속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외부체계와 이혼관련 특성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궁극적으로 만족스러운 이혼협상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혼협상의 결과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이혼합의안 상호만족도'는 이혼 당사자간의 협상수준과 확대가족의 개입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혼분쟁해결을 위한 원조활동에서는 이혼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관계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협상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자의 모델링과 중재를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역기능적이고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혼협상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갈등해결방식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성적 해결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확대가족들의 긍정적인 개입은 당사자들의 이혼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정적인 개입과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이혼협상을 진행하는 행위는 당사자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확대-가족의 개입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혼협상과정 중에 있는 부부들에 대한 개입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다. 이혼협상은 당사자들의 협상수준과 심리적 특성, 확대가족의 개입 유형 및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혼종류에 따라 이혼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진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이혼 가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혼협상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이혼 부부들은 대체로 이혼에 관한 문제들을 합의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서로가 만족할만한 합의내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의 이혼협상 체제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협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혼 가족들이 이러한 과정을 잘 극복하도록 보다 전문적으로 원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함의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방법이 가지는 제한점으로써, 이혼 부부를 대응(paired)시켜서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혼협상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협상과정 중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의 상호특성을 부부간의 상대적인 맥락에서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수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 이혼과정에 있는 두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혼협상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들과 협상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이혼은 생활에서 단절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혼협상 결정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협상과정이 진행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혼협상이 종료되는 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 선정의 한계로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혼 가족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표본이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와 조사결과를 전체 이혼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상류층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혼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같은 가치체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가치체계적 요인들이 고려된다면 이혼협상결과는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협상의 과정적 측면이 부각될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이혼 가족들의 특성에 적합한 개입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곽배희(1994).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찬(2000). 한국가족의 이혼원인과 이혼과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권신영(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한국가족사회복지학, 8, 41-74.
- 김혜련(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선욱(1992). 이혼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1997).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여성연구, 52, 75-95.
- 성정현(2000). 이혼여성의 자립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협성논총, 12, 77-108
- 신성자(2000a).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위한 학제간 팀 이혼중재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1), 31-58.
- \_\_\_\_\_(2000b). 이혼조정서비스 활성화 모색을 위한 연구. 법조, 529, 215-45.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6(2), 97-119.
- 정성호(1991). 우리의 가사조정운동의 문제점 인식을 위한 일고(上). 법조, 421, 82-98.
- \_\_\_\_\_(1991). 우리의 가사조정운동의 문제점 인식을 위한 일고(下). 법조, 422, 108-123.
-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태 통계연보.
- 한경혜(199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

- 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회, 6, 103-128.
-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홍원표(1993). 도시맛벌이 부부의 갈등관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hrons, C. R.(1994). *The good divorce*. New York: Harper-Collins.
- Albrecht, S. L.(1980). Reactions and Adjustments to Divorc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 29(1), 59-68.
- Baker, L. C.(1981). The transition to divorce: discrepanci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Purdue University, Ph. D.
- Barsky, M.(1983). Emotional Needs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s Blocks to Mediation. *Mediation Quarterly*, 2, 55-66.
- Bloom, B. L., Asher, S. J. and White, S. W.(1978). Marital disruption as a stressor: A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5(4), 867-894.
- Brown, E. M.(1982). Divorce and The extended family: A Consideration of Services. *Journal of Divorce*, 5(2).
- Doherty, W., Su, S. & Needle, R.(1989). Marital Disrup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72-85.
- Emery, R. E. and Matthews, S. G. & Kitzmann, K. M.(1994). Child Custody Mediation and Litigation: Parents' Satisfaction and Functioning One Year After Settl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1), 124-129.
- Erikson, J. L.(1991). The problem of Impasse in custody mediation: Insights from three perspective. University of Kansas, Ph. D.
- Federico, J. F. (1979). The Marital Termination Period of the Divorce Adjustment Process. *Journal of Divorce*, 3(2), 93-106
- Ferreiro, B., Warren, N., & Konanc, J.(1986). ADAP: A divorce assessment proposal. *Family Relations*, 35, 439-449.
- Folberg, J. & Milne, A.(1988). *Divorce 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Guilford Press.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76). Stress and coping in divorce: A focus on women. *Family Coordinator*, 25, 417-428.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78). Divorced fathers. *Psychology Today*, 10, 42-46.
- Hochberg, A. M. & Kressel, K.(1996). Determinants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Divorce Negotiatio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5(1-2), 1-21.
- Hochberg, A. M.(1984). Determinants of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Divorce settlement Outcomes. Rutgers University The State U, Ph. D.
- Johnston, J. R. and Campbell, L. E. G.(1988). *Impasses of Divorce: The dynamics and resolution of family conflict*. New York: The Free Press.
- Johnston, J. R. and Campbell, L. E. G.(1993). A Clinical Typology of Interparental Violence in Disputed-Custody Divor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2), 190-199.
- Kressel, K. Jaffee, N, Tuchman, B. Watson, C. & Deutsch, M.(1980). A Typology of Divorcing Couples: Implications for Mediation and the Divorce Process. *Family Process*, 19(2), 101-116.
- Kressel, K.(1980). Patterns of coping in divorce and some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Family Relations*, 29.
- Kressel, K., and Deutsch, M.(1977). Divorce therapy: An in-depth survey of therapists views, *Family Process*, 16(4), 413-443.
- Levinger, G. & Moles, O. C(1979). *Divorce and Separation: Context, Causes and Consequences*. Basic Books, Inc.
- Robinson, B. E.(1983). Former Spouse Conflict: During Marriage, Divorce, and Postdivorce. University of Minnesota Ph. D.
- Straus, M. A., Hanby, S. L., Boney-McCoy, S. &

-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hoennes, N. A. & Pearson, J.(1985). Predicting Outcomes in Divorce Mediation: The Influence of People and Process. *Journal of Social Issues*, 41(2), 115-126.
- Wallerstein, J. S. & Kelly, J. B.(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 Basic Books.
- (2003년 8월 28일 접수, 2003년 11월 1일 채택)